**서로에게 성경공부 (To One Another Bible Study) 1:30pm, December 23, 2012**

**싸움 – 서로에게 2013년 비전  
The Fight – To One Another Ministries’ 2013 Vision**

**Pray for our newly weds**

**Opening Prayer**

**Psalm 23 Responsive Reading**

****

**Sing “The Heart of Worship”**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Rom 12:1-2 개역한글)

1 And so, dear brothers and sisters, I plead with you to give your bodies to God because of all he has done for you. Let them be a living and holy sacrifice-- the kind he will find acceptable. This is truly the way to worship him. 2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which 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Rom 12:1 -2NLT)

예배는…

# 삶으로 예배드리자 (Let’s worship through our live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일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v.1)

*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5). 그러므로, 서로에게 사역에서는 2013년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focus하길 바랍니다
  + Social Events
  + 서로를 위한 기도 (Prayer for One Another)
  + 전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Evangelizing through our lives, at places God has placed us)
  + 집없는 사람들과 만남 (Meeting with those who have no homes)
  + 각 모임들, 커피 집, 같이 밥 먹기, 등등 (individual get-togethers, coffee houses, eating together, etc)
    - 옛날 대학교 때에는 선배들이 후배들 밥 사줬는데 (만들어 주던가), 이젠 그런거 없나요?
    - 우리 더 자주 모입시다 – 교회에 official 모임들만 말고, 그냥 함께 시간 보낼 모임들이요

우리는 서로와 더 많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만 함께드리면 교회일을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한다면 (교회 안과 밖에서) 서로를 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일만이 아니라 (Luke 10:38-42). 우리의 삶이 서로를 위해 헌금/헌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예배 입니다**.

#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에서 쉬며 충전 받아야 된다 In order to worship God with our lives, we must come rest at the Church and be restored

13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3-16 개역한글)

13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what good is salt if it has lost its flavor? Can you make it salty again? It will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as worthless. 14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like a city on a hilltop that cannot be hidden. 15 No one lights a lamp and then puts it under a basket. Instead, a lamp is placed on a stand, where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16 In the same way, let your good deeds shine out for all to see, so that everyone will praise your heavenly Father. (Matthew 5:13-16 NLT)

너희는 세상의 소금 . . . (You are salt of the earth . . .)

너희는 세상의 빛 . . .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 . .)

세상이 어디인가요? (세상이 교회 안인가요?) Where is the world? (is inside the church considered “the world”?)

소금의 맛은 무엇이랑 비결을 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we compare the “flavor” of salt to?)

*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에 관계 (our faith, our relationship with God)
  +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깊어지는 관계로 서로를 위해 향하는 것입니다.
    - 많은 젊은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의 삶을 구분하여 삶니다. 주일은 교회에서 착하게 보이며 다니고, 주중에는 주일이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회사/직업를 위해서, business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 우리는 2013년에 구분되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 주일은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과 모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교회에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쉬는 것입니다.
    -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쉬러 오는 곳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는 것입니다. 이 것들을, 쉬는 것의 중요함을 잃지 않고, 서로가 함께 쉴 수 있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보가 준비 되어있으면 예배를 서로 따라가기가 쉬워집니다, 찬양팀이 연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찬양을 준비한다면 서로 걱정 없이 예배드리며 쉴수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준비 되어 있으면 함께 성찬하며 하나님이 하신일을 기억하며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 . 우리의 일은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지 못한다면 (충전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주중에 (교회 밖에서)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v. 16). 당신은 빛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이 말에 어떤 도전이 있나요?

#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자, Let’s change the way we think

우리가 세상에 살겠지만, 우리는 세대를 본바지 말라고 합니다 (v. 2).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을 알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랑 부흥회*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in this paragraph, I should add something about being able to disagree with each other; And how we should wrestle with other people’s views ###)

그 뜻을 어떻게 알을 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라는지 알 수 있을 까요?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Rom 12:1-2 개역한글)

2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which 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Rom 12:1 -2NLT)

**νοὸς (Nooce, 누쓰)** - often translated mind (마음) – It means to understand (이해하다), perceive (느끼다, 인식하다), think (생각하다), reason (논리적으로 계산하다, 생각하는 방식)

2013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시다. ###check sentences here and see if we can say something about being able to open our minds to what God is doing (not being closed to the way you’ve been doing things – we need to expand our world views – think of worship in China with no musical instruments, etc – what does it look like?###) 우리가 하던 방식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하는 지 정검해봅시다. 이번 해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듣고 따르는 것을 배우며 실행해봅시다.

우리 모두 배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배웠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생각하는데로만이 예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우리 모인 곳에 임제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 . .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생각, 배운것들까지 내려 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도전을 받을 준비하세요 – 2013년도에는 우리의 생각을 challenge (도전)해봅시다
  + 전도사와 다른 목회자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말고 도전 받아 보세요
    - 성경의 원례 뜻을 이런 거였습니다
    - 찬양을 이렇게 해봅시다,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다
    - 우리 다시 모입시다
    - 성경 공부 할 자료들 읽어 오세요
    - 우리 기도 합시다
    - (이름) 형제/자매, 기도 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모임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뜻을, 이유를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 + 서로 대화로 더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당신의 생각을 도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 모이는 것에 힘씁시다.
  + 우리의 공동체 수가 너무 커지기 전에, 다른 교회 예배들도 보며,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좋은 점/단점들을 배우며, 우리에게 맞는 예배를 만들어 갑시다
  + 서로를 위한 기도와 다른 기도하는 기회때,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로, 용기/자신 있게, 행동해봅시다 (손을 언저 기도, 믿음으로 낳게 해달라는 기도, 서로를 위한 예언, 등등)
  + 우리 믿읍시다. (우리의 상황가 하루에 일들이 하기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에 사람이 낳던가, 죽은자가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읍시다)

# 믿음의 싸움 (Fight for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12, 개역한글)

**Fight the good fight for the true faith.** Hold tightly to the eternal life to which God has called you, which you have confessed so well before many witnesses. (1 Timothy 6:12, NLT)

우리의 싸움은 자신과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 출석 비율)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지금도요? 당신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안정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싸웁시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 . . 당신이 자신과 보다 서로와 더 많이 싸운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7)

# 공동체를 만들자, 친구들로써 (Let’s form a community, from a position of friendship)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15, 개역한글)

I no longer call you slaves, because a master doesn't confide in his slaves. Now you are my friends, since I have told you everything the Father told me. (John 15:15, NLT)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상원”(자신 이름) 이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합쳐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것을 서로에게 사역에서는 친구들로서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쁜 곳에 시간도 내며, 서로 상처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가고하면서 삶을 나누는 친구들로서 함께 자랍시다.

학교 선배들, 우리에게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영향은 준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진심으로 당신이 잘 되길 바란 사람들 아니였나요? 똑같이, 우리의 공동체는 친구들이 사랑으로, 서로가 잘되길 바라는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생각을 합시다. (교회 안과 밖에서)

Quiz –

1.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만나서 밥 먹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있다
2.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밥 먹은 것은 예배가 될 수 있다
3. 새벽 예배, 수/금 예배, 주일 예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십일조도 열심히 하며, 교회 봉사일로 여러가지 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다
4.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5. 교회는 일하러 가는 곳이다
6.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던 방식을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다